

# 본문



“야경은 죽이는데, 우리도 그렇지.”

# LAST PHOTO NIGHT

CALL OF CTHULHU  
7TH EDITION

FANMADE SCENARIO  
WRITTEN BY 라성

# ***Last Shot Tonight***

Call of Cthulhu 7th edition fanmade scenario w. 라성

*야경은 죽이는데, 우리도 그렇지.*

별이 빛나는 오늘 밤, 그 광채를 가릴 정도로 빛나는 야경을 가진 도시. 도시의 그늘에서 사는 이들 전원에게  
거액의 의뢰가 찾아들었습니다. 사례금은 1억 달러, 기한은 자정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은 프로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화려한 도로는 삼시간에 정신 나간 킬러들의 사냥터로  
변모합니다.

이번 의뢰에는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 준다는 보상이 덤으로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먼저 타겟의  
숨통을 끊는 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한때 등을 맡겼다가도 서로에게 총구를 들이밀 수 있는 것이 불문율.

서로를 겨뤄야 한대도 멈추지 않을 테죠? 우리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죽여주는 놈들이**잖아요?

---

---

**아래로 진상이 이어집니다.**  
**수호자 외에 열람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

---

## 사건의 전말

사실 이 암살 의뢰를 맡긴 인물은 타겟 시리우스 갤러웨이 본인입니다. 미친 게 아니고서야 누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큰 판을 벌리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미쳤습니다. 그는 은밀히 형언할 수 없는 **하스투르**(룰북314p,335p) 를 숭배하는 잔혹한 히아데스 교단의 교주입니다. 우연히 희곡 ‘노란 옷의 왕’을 와전된 버전을 읽고 광기에 빠진 그를 필두로, 이 교단은 하스투르를 살육의 제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갤러웨이는 최근에는 하스투르 강림 의식을 위해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는 거룩한 순교자가 되고 싶어 스스로조차 강림 의식에 필요한 마지막 제물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이 교단에는 **제물은 반드시 타살로 죽어야 한다**는 독특한 교리가 퍼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여줄 존재를 찾다가 도시의 킬러들과 현상금에 눈이 먼 이들을 떠올립니다. 신도들은 모두 함께 순교해야 하고, 자신은 마지막 제물이 되어야 하므로 신도들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돈만 주면 죽여 주는 이들은 꽤 괜찮은 방법이었죠. 갤러웨이는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의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킬러 혹은 도시의 범죄자들 중 가장 강한 이를 찾기 위해 이렇게 일을 키워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제물인 갤러웨이를 죽이는 자가 강제로 **의식 대리자**의 지위를 넘겨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스투르 강림 주문의 변형된 버전입니다.

### 〈의식 대리자〉

의식 대리자는 살아 있는 하스투르 강림 의식의 상징물로, 의식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주문을 외울 필요 없이 살아 있기만 하면 강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스투르와의 접촉 기회를 얻게 되며, 이성이 순식간에 하락하는 대신, 하스투르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KPC와 탐사자 둘 중 하나, 혹은 다른 킬러, 타겟 갤러웨이의 숨통을 끊어 의뢰에 성공하는 한 명은 강제로 의식 대리자가 되고, 그 시점부터 강림 의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갤러웨이가 굳이 킬러들끼리 맞부딪치게 한 이유는, 다른 킬러들을 전부 제칠 정도로 살육의 노하우가 있어야 **의식 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갤러웨이는 타겟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척, 교단의 본거지인 히아데스 사의 빌딩으로 킬러들을 이끌고 그 옥상에서 의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당할 셈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진짜 문제는 암살 의뢰가 아니라, 암살이 성공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림 의식이 성공하면 최악의 경우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 대리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무슨 터무니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남겨진 탐사자(KPC)는 죽고 싶지 않으면 의식 대리자가 된 탐사자(KPC)를 죽여야만 합니다. 강림을 막을 방법은 '거의' 그것 뿐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후반부에서는 PVP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혹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등을 맞댔다가도 서로에게 충구를 들이밀 수 있는 것이 불문율. 생사의 경계 위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밤의 일도 특별한 사건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세계가 걸렸다는 점은 심장을 뒤흔들지도 모르겠군요...

## 시나리오 배경

배경이 되는 도시는 야경이 아름답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로 자유롭게 상정하시면 됩니다. 서울, 뉴욕, 도쿄, 상하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파리...

가상의 도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새롭게 가정하셔도 됩니다. 예시) 가상의 대도시 뉴타운/성산특별시/히지리아마/메트로폴리스...

### 수호자에게 보내는 전언

이 시나리오는 대립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호자가 이후의 전개를 안다고 하여도, KPC와 탐사자가 공평하게 같은 판정을 하고 메타적인 선택 대신 캐릭터성에 따라 행동하며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탐사자나 KPC의 직업이 킬러가 아닐 경우

시리우스 갤러웨이는 살육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을 죽여줄 수 있는 범죄직 종사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었을 것입니다. 범죄직 캐릭터라면 웬만하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초반부에서 13에게 연락이 올 정도로 이름난 타입이 아니어도 13이 온갖 정보통을 통해 탐사자가 의뢰를 받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어 연락해 옵니다.

### 옵션: 탐사자와 KPC 간의 관계 추천

초면이어도 무관한 시나리오이지만, 가벼운 구면 설정을 추가하면 재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과거의 한 대형 의뢰에서 서로 다른 의뢰인에 고용되어 충돌했던 사이. 누가 먼저 의뢰를 완수했을지 주사위 대항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같은 팀 소속 킬러, 마피아 등
- 서로 본업을 몰랐던 지인

## 하우스 룰

**PVP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탐사자 간 형평성을 위해 아래 하우스 룰을 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트 제작 단계에서 플레이어에게 안내 후 조정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면 도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수호자에게 맡깁니다.

-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도 괜찮으나, 모든 무기의 피해는 1d6. 총알은 무한 제공.
- 전투 기능치의 최대치는 80.
- 전투 기능치와 회피 기능치를 합쳐서 140을 넘기지 않을 것.

### [총알 회피 가능]

기존 사격의 룰에서, 사격은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제거합니다. 거리가 벌어져 있다면 반격할 수 없는 것은 같으나 회피 기능치로 대항하여 날아오는 총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조언: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사격의 가장 큰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체구 보너스와 치명타 피해가 붙는 근접 무기가 더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격은 원거리 견제가 가능하며 반격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아직 남아 있지요. 이를 고려하여 무기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플레이어에게 알려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 NPC 정보

**시리우스 갤러웨이, 죽어야만 하는 교단의 주인** ————— 개변 추천: 이은성/우하라 류이치

56세, 포멀하게 머리를 넘긴 중년 남성. 금융 대기업 히아데스 사의 회장이자 히아데스 교단의 교주입니다.

산제물이 되길 자처하여, 킬러 중 누군가가 자신을 의식 시간 전에 죽여주기를 바라고 의뢰를 걸었습니다.

타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살육 뿐이라고 주창하는 교단의 교주이니만큼 물밑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험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남의 의뢰를 받지 않을 뿐, 탐사자와 얼추 비슷한 부류일지도 모릅니다.

근력 60 건강 60 크기 60 민첩성 60 지능 70 정신력 60 | 체력 4 피해 보너스 1D4

근접전(격투) 60 사격(권총) 50 수사과학 50 심리학 40 설득 50

주문: 하스투르 강림(룰북 252p)

비서실장 —————

40대 초반의 눈썹이 짙은 여성. 히아데스 사에 소속된, 회장 갤러웨이의 비서실장이자 부교주입니다. 도로 추격 액션 중에는 조수석에 갤러웨이가 앉은 하얀 세단의 운전석에서 운전을 도맡고 있습니다. 이후 히아데스 타워 앞에서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근력 50 건강 50 크기 60 민첩 50 지능 60 정신력 50 | 체력 5 마력 10 피해 보너스 1D4

사격(권총)20 근접전(격투) 20 회피 25 | .22 쇼트 오토매틱 권총 사용 (탄환 4발)

---

### 13, 비밀스러운 조력자

도시의 범죄자들에게 암살 의뢰를 전달해주는 중간 연결책, 조력자입니다. 늘 번호가 13으로 끝나는 음성 변조 전화를 겁니다. 정중한 편이며, 정체는 불명이지만 신뢰도는 높습니다. 이번 의뢰의 진상은 모릅니다. 탐사자가 헤맨다면 13의 전화를 통해 도움을 주어도 좋습니다. 단, 그는 도움의 대가로 더한 수수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 핸드아웃 다운로드 링크

 라샷투 핸드아웃

---

## CHAPTER1: 대형 의뢰

대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의 네온사인,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광고판들, 거리마다 깜빡이는 헤드라이트와 차량들의 행렬이 어지럽게 흐릅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은은하게 수놓으며, 어둠이 내려앉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탐사자는 홀로 차에 몸을 싣고 도심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를 막 끝마쳤거나, 술 한 잔 걸치러 가든, 귀여운 강아지를 돌보러 집으로 가든 하고 있었겠죠. 따라서 고화력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 무기를 비롯한 소지품을 확인해주세요. (\*하우스 룰을 도입했다면 어떤 무기이든 1d6의 피해를 가지며, 사격은 회피가 가능하다는 등의 세부 조항을 한 번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오늘의 뉴스 특보를 늘어놓습니다.

“시 외곽의 발전소에서 불법 침입 흔적이 발견되어 경찰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침입자들의 목적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전소 내부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늘 밤 정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수호자 정보: 오늘 밤 정전을 일으켜 의식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히아데스 교단의 짓입니다.)

이런 지루한 소식만큼 최근에는 자잘한 의뢰만 들어오던 참입니다. 언론인을 죽여 달라던가... 이름난 분들의 은폐 공작에 장기 말처럼 굴려지는 것도 지켜워질 참입니다. (\*탐사자가 킬러가 아니라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때, 전화벨이 울리며 단조로운 목소리를 끊어냅니다. 발신인의 전화번호는 '13'으로 끝나 있습니다. 전원에게 [핸드아웃: 13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핸드아웃: 13의 정보]

13은 여러 킬러들에게 대형 의뢰를 전달하는 중간 연결책 중 하나입니다. 오로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만 연락하며,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습니다. 이름, 나이, 성별, 외관 등 신원 불명. 한 사람인지조차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는 매번 달라지되 반드시 13으로 끝납니다. 써틴, 십삼이, 그놈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뒷세계에서 제대로 신뢰와 시스템을 구축해둔 모양인지 대형 의뢰를 잘 물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맞는 킬러에게 연락해 연결해 줍니다.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믿을 만 하지만, 그를 얼마나 믿는지는 각자 다를 겁니다.

당신이 킬러가 아닐지라도 13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자유롭게 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밤 되고 계신가요?”

전화를 받으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처럼 차분한 높낮이. 그러나 다소 긴박한 기운이 감도는 그 기저에서 큰 건수의 기운이 읽힙니다.

“대형 의뢰가 하나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조금 촉박한데요, 기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시계를 확인하면, 지금은 오후 10시경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서 활동하시는 킬러분과 능력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 **전부** 연락드렸습니다.”

“타겟에 대한 정보와 의뢰인의 전언은 문자로 보내 드릴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탐사자들에게 **[핸드아웃: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운전은 하느라 못 읽겠다고요? 차에 TTS 기능이 있는 걸로 하십시오.

#### **[핸드아웃: 의뢰인의 편지]**

안녕하세요, 신원을 밝힐 수 없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이 킬러이시든, 아니시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히아데스 사의 회장인 시리우스 갤러웨이를 죽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금일 자정까지여야만 합니다. 의식의 기간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었기에 촉박한 의뢰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습니다. 사례금은 성의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사안은 세계의 명운을 건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처음 그의 숨을 멎게 하는 이에게는 소원을 하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사례금 이상의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어떤 소원이든 이루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적어도 사례금 정도는 이 의뢰를 전달드릴 믿을 만한 연결책 분들께 미리 맡겨두었으니 안심하고 의뢰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타겟의 정보]**

이름: 시리우스 갤러웨이

포멀하게 머리를 넘긴 56세 남성. 본사 건물인 히아데스 타워가 이 도시에 랜드마크로 위치한 금융계 대기업 히아데스 사의 회장.

(\*수호자 정보: 탐사자가 13에게 의뢰인의 정체에 대해 캐묻는다고 해도 의뢰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므로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13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13은 말을 이어갑니다.

“조금 급한 의뢰지만, 프로이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사례금을 들으시면 구미가 조금 당기실 겁니다.”

“1억 달러. (\*한화 약 1300억 원) 가장 먼저 처리한 분께 갑니다!”

“...아, 제 뭇인 10% 수수료는 제외하고요.”

“그 외에도, 뭐든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특이한 보상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돈에 관해서는 맡기셔도 좋습니다.”

목소리의 어조에서는 확신이 묻어납니다.

“수락하실 분들께서는 8번 도로로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얀 렉서스 LS 2023년, 번호는 HD29139, 조수석에 타고 있습니다.”

탐사자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다면, 럭키! 마침 9번 도로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이대로 쪽 달리면 8번 도로와 이어집니다. 당신이 아마 이 연락을 받은 이들 중에서 마침 타겟에게 가장 가깝게 있었던, 운 좋은 한 명일 겁니다. 13은 한 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참고로, 의뢰가 저희 측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란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조금 급하신가 봅니다. 킬러들한테만 연락이 간 것도 아니니 곧 벌레 떼들이 꼬일 겁니다. 경찰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더 화끈하게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손을 써 둘 테니까요.”

(\* 13은 킬러 연결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조 공작원을 여러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도시가 숙대밭이 되어도 경찰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는 끊어지고, 도시의 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탐사자는 8번 도로로 진입하나요?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때, KPC 또한 같은 연락을 받고 의뢰를 수락하여 8번 도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 ◆ 8번 도로

<자동차 운전> 판정으로 KPC와 탐사자 중 누가 더 먼저 8번 도로에 진입하는지 겨뤄볼 수 있습니다. 성공 수준이 높은 이가 먼저 도로에 진입하며, 대실패 시 다급한 마음에 접촉사고를 내면서 진입합니다. 체력-1 KPC와 탐사자가 조우하는 타이밍입니다. 탐사자가 8번 도로에 들어섰을 때, 판정 결과에 따라 KPC의 차가 굉음을 내며 추월하거나 뒤를 쫓아옵니다. 창문 너머로 확인했을 때 KPC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며, 누가 봐도 저 차의 주인도 목표가 같다는 사실을 감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도 의뢰를 수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구면이라면 알아볼 수 있으니 창문 너머로, 혹은 전화를 걸어서 네가 왜 여기 있냐며 인사 한 번 나눠도 되겠네요.

탐사자와 KPC가 도로에서 타겟의 차를 찾는다면 <관찰력> 판정. (추적 판정 대체 가능, 혹은 13을 대인기능으로 들들 볶아 좀 더 자세한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 **판정 성공 시:** 저 앞에서 HD29139의 번호판을 단 하얀 렉서리 세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차체는 밤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거리의 불빛들을 뒤로하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조수석에 갤러웨이가 앉아 있으며, 운전석에서 비서나 보좌관으로 보이는 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 **판정 실패 시:** 재판정하여 성공할 때까지 타겟을 찾지 못합니다.

타겟의 뒤를 잡았을 때, 도로 전체에 긴장감이 스며듭니다. 저 뒤에서 검은색 차 하나가 질주해오며, 온갖 차들을 이리저리 제치고 폭풍같이 나타납니다. 이 도로의 속도 제한은 70km/h인데요. 지금 160km/h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군요. 그 차는 하얀 세단을 향해 무섭게 달려갑니다.

이 검은 차를 관찰한다면, 차 내부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며, 차가 가까워질수록 무언가를 조준하는 모습이 은은하게 비칩니다. 창문 밖으로 타겟의 세단을 향해 저격총의 총구가 튀어나옵니다. 탐사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만일 탐사자나 KPC가 화끈한 성격이라 선제사격을 한다면, 판정을 시켜서 겨루게 해 주세요. 서로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라면 검은 차의 저격수가 타겟을 향해 먼저 총을 쏩니다.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빛나가 하얀 세단의 차체에 박힙니다. 탐사자가 타겟에게 사격해도 반드시 애매하게 빛나갑니다. 설령 대성공일지라도, 차 내부의 좌석 헤드에 맞은 것 같다고 해주세요. 더 거리를 좁혀야겠습니다.

### 누구든지 사격을 시작했을 경우

탕! 시원한 총격음이 울리자마자 도로가 혼비백산해집니다. 일반인들은 출행량칩니다. 타겟의 하얀 세단이 김새를 찬 듯 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도망치기 위해 급하게 빠른 속도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차는 도시의 불빛들을 뒤로 남기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이때, 탐사자는 유난히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움직이는 다른 몇 대의 차들을 전부 인식 가능합니다. 저들 또한 킬러들이라는 감이 확실히 옵니다.

### ! 타겟의 차를 행동불능으로 만드려고 한다면

탐사자들이 타겟의 차의 타이어를 터트리겠다고 하는 경우나 다른 기발한 방법을 떠올린 경우 등의 대처 방침입니다. 추격전을 계속해야 진행이 되므로 극단적 난이도의 성공이 아닌 이상 아슬아슬하게 빛나가게 해주세요. 성공해도, 펑크난 타이어 하나를 끌고 계속 달립니다.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닌 듯 합니다. 혹은 타겟의 차가 기이한 힘으로 떠올라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모면하고, 흥미를 고취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겟인 갤럭시가 의식 장소인 타워로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기 위해 주문을 쓴 것입니다.)

타겟을 놓치지 않으려면 뒤를 쫓아야 합니다. KPC와 탐사자 모두 <자동차 운전> 판정으로 운전대를 섬세하게 꺾어서 주변의 난장판이 된 차들을 피해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판정으로 대체 가능. 판정 실패 시 뒤처집니다.

## ◆ 추격전

도로는 아수라장입니다. 총성과 함께 비명 소리가 난무하고, 차들은 급하게 멈춰 서거나 방향을 틀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킬러들이 굶주린 맹수처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꼴이 볼만 합니다.

타겟의 하얀 세단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듯 도로를 질주합니다. 엔진 소리는 굉음을 내고, 타이어는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코너를 돕니다.

탐사자와 KPC는 지금 타겟과 가장 가까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다른 킬러들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뒷쪽에서 검은색 SUV가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더니, 창문을 내리고 AK-47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 차체에 구멍을 내고,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손놀림> 판정 또는 <자동차 운전> 판정을 통해 빗발치는 총알을 피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KPC도 마찬가지입니다.

- **판정 성공:** 탐사자는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총알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차를 컨트롤합니다.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심지어 다른 차들을 방패 삼아 총알을 막아내는 기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찔한 순간들이 계속되지만, 어찌 됐든 타겟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추격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판정 실패:** 탐사자는 총알이 자신의 머리 바로 옆, 좌석 헤드에 박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부서진 유리창 파편이 박혀 체력 -1.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 다른 차들 사이로 빠지느라 조금 뒤쳐지게 됩니다.
- **주사위값 90 이상으로 판정 실패 :** 총알이 차체에 명중하며 타이어에 펑크가 납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균형을 잃어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관찰력> 또는 <위협> 등의 판정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고, 다른 차를 빼앗거나 다른 이에게 빌어 얻어 타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스페어 타이어로 빠르게 교체하거나요. 어찌 되었든 가장 뒤쳐집니다.

탐사자와 KPC 둘 중 더 앞서 있는 하나는 지금 타겟의 차에 위치 추적기가 내장된 총알을 박아넣을 수 있습니다. 해 보시겠어요?

<사격> 판정 성공 시, 총격음과 함께 총알이 타겟의 차에 명중합니다. 총알이 박혀,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추격전은 계속됩니다. 차들은 번쩍이는 불빛을 흩뿌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교차하는 도로로 아슬아슬하게 들어섭니다. 한창 오르막길을 달려 올라가고 있을 때, 예상 외의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 아래에서, 한 킬러가 타겟의 차를 향해 바주카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게 킬러인지 미치광이인지. 이대로 계속 달리면 도로와 함께 폭발하거나, 아래로 추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추월하고 싶다고 말하는 탐사자가 있다면 극단적 난이도로 성공하지 않는 이상 바주카포에 정통으로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주세요. 그럼에도 달린다면, 그의 화끈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워야 합니다. 전원 <민첩> 판정!

- **성공 시:** 탐사자는 간발의 차이로 차를 멈추고 폭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연쇄적으로 급정거하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 **실패 시:** 연쇄 충돌로 체력에 3의 피해를 입습니다.

킬러는 망설이지 않고 바주카포를 발사합니다.

**과양 -!!**

굉음과 함께 도로가 화염에 휩싸이고, 콘크리트 조각들이 튀어 오릅니다.

해치웠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부아아아아앙-!*

타겟의 차가 먼지 연기를 뚫고 하늘을 부양하듯 달려나와 끊어진 도로 너머로 멀어져 갑니다. 아슬아슬하게 폭발을 피한 모양입니다. 탐사자와 KPC는 모두 폭발 직전 도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전원 <관찰력> 판정.

- **성공 시:** 이 폭발에서 죽지 않았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연기 사이에서 타겟의 차가 인위적으로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영화적인 연출 수준이 아닙니다. 미약한 빛과 함께 정말로 공중에서 약간의 방향 조정을 거친 뒤 도로로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 직전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타겟이 창백한 얼굴로 무엇을 다급하게 중얼거리는 것 또한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엔 미지의 힘이 개입해 있습니다.
- **실패 시:** 이 폭발에서 죽지 않았다니 뭔가 이상합니다. 연기 사이에서 타겟의 차가 인위적으로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영화적인 연출 수준이 아닙니다. 미약한 빛과 함께 정말로 공중에서 약간의 방향 조정을 거친 뒤 도로로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미지의 힘이 개입해 있습니다.

\*아직 죽기 이르다고 판단한 갤러웨이가 주문을 쓴 것입니다.

타겟이 멀어집니다. 도로 밑에서 바주카포를 겨누고 있던 킬러도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최대한 빨리 다른 우회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만약 탐사자가 여기서 의뢰를 포기할까 고민한다면, 방금 본 기이한 사건을 통해, 의뢰를 마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조건도 정말 유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도 포기한다면 END3.

## ◆ 타겟 추적

타겟을 추적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 기본 루트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입니다. 공중 도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타겟이 간 도로 방향과 이어지는 다른 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겟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내려, 지나가는 트럭 위로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슬아슬하게 다른 자동차 위로 뛰어 올라, 타겟이 간 방향으로 질주하는 차량을 찾아 올라타는 겁니다. <도약> 혹은 <민첩> 판정을 시도 가능합니다.

- **성공 시:** 탐사자는 날렵하게 자동차 위에 올라타는 데 성공합니다. 조용히 몸을 숨기고, 타겟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골라 순조롭게 추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실패 시:** 쿵! 착지가 불안정합니다. 체력 -1. 너무 강하게 착지한 탓에, 운전자가 깜짝 놀라 핸들을 놓칩니다. 차가 휘청거리고, 운전자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른 차로 갈아타거나, 운전자를 위협하여 운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데 추가적인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마저 실패 시, 아래 추적 실패 루트로.

### ■ 위치 추적기 루트

만약 탐사자나 KPC가 타겟에게 위치 추적기를 몰래 심는 데 성공했다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해당 탐사자는 서두를 필요 없이 택시를 잡아도 여유롭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믿을 만한 조력자에게 연락하여 이동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소지한 탐사자에게는 비밀 정보를 주세요. 타겟은 도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마천루 빌딩이자 히아데스 사의 본사인 히아데스 타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판정 없이도 체력을 확정적으로 1 회복할 수 있는 응급 키트를 하나 챙길 수 있습니다.

### ■ 그 외 루트

플레이어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경우입니다. 플레이어가 떠올리기 어려웠다면 수호자가 먼저 제시해 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아래 도로로 내려가 운전자들을 협박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한다거나(위협, 자동차 운전), 헬리콥터를 용케 구해서 공중 추격전을 벌인다거나, 경찰이나 해커 인맥을 총동원해서 위치를 추적한다던가...(대인기능 등)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도, 그럴듯하다면 수호자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판정을 통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경우 매정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적에 완전히 실패할 경우

판정에 줄줄이 실패해서 길바닥에 처량하게 던져진 탐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KPC에게 빌붙는다거나, KPC의 흔적을 쫓는다거나 다른 조력자와의 연락으로(대인기능 판정) 킬러들이 히아데스 타워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해주는 식으로 뒤늦게 도착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 ! 이벤트: 저격수의 습격

어떤 방법으로 추격을 하든, 이 이벤트를 겪습니다.

탐사자는 갑작스레 온 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낍니다. <관찰력> 혹은 <듣기> 판정이 가능합니다.

- **성공:** 네온사인에 반사되는 총구의 섬광을 포착했습니다. 저 멀리 높은 빌딩 옥상에 숨어있는 저격수를 발견합니다. 탐사자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인 순간 총알이 굉음과 함께 귀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슬아슬하게 총알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 **실패:** 저 멀리 높은 빌딩 옥상에 숨어있는 저격수를 발견한 순간... 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고통이 엄습합니다. 어깨를 스치는 듯한 통증에 비틀거리거나, 혹은 귓가를 찢는 듯한 소리에 정신이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총알은 어깨를 꿰뚫거나, 귓불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d2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견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본다면, 방금 전의 도로에서 침착하게 움직였던 놈들은 모두 이름 좀 날린 킬러이자, 서로의 경쟁자라는 게 훤히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뒷세계에 익숙한 이라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킬러 뿐만 아니라 유명한 범죄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를 틈타 눈에 띈 경쟁자를 죄다 제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

## CHAPTER2: 마천루에서

### ◆ 히아데스 타워 앞

히아데스 본사 타워 앞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인 대기업 히아데스 사의 본사 빌딩은 이 밤에도 황금색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앞의 넓은 광장에는 반짝이는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총을 맞아 엉망이 된 [하얀 세단]이 급하게 세운 듯 버려져 있습니다. 또한 빌딩의 [출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조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탐사자가 KPC를 마주친다면, 건물 안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수상하니 잠시 휴전을 하자고 하며 임시 동맹을 맺어도 좋겠습니다. 그럴 성격이나 사이가 아닐 경우 KPC를 아래 '수상한 경고' 이벤트 때나 등장시켜 주세요.

#### [동상]

커다란 빌딩 앞에 으레 놓여져 있고는 하는 금속 조형물입니다. 성단 사이에서 광휘를 내뿜는 거대한 금빛 별을 형상화한 듯한 이 조형물 아래에는 글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 눈, 그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위대한 분께 모든 것을 바친다.' <과학(천문학)> 판정이 가능합니다. <지능>, <교육>, <자료조사> 극단적 성공 정도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주지 않아도 되는 정보입니다.

- **판정 성공 시:** 히아데스 성단이 황소자리에 있는 산개성단임을 고려하면 그 중 가장 빛나는 알파성 알데바란을 묘사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HD29139로 등록되어 있는 겉보기 등급이 0.86이나 되는 밝은 별인 알데바란은 과거부터 신의 눈이나 별들의 지도자 등으로 불리고는 했지요. '알데바란, 그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위대한 분께 모든 것을 바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과학(천문학)> 어려움 난이도 이상 성공 시:** 지금은 황소자리가 잘 보이는 계절입니다. 알데바란은 가장 눈에 띌 것입니다. (\*이 정보는 정말 운이 좋을 경우에만 주시기 바랍니다.)

#### [하얀 세단]

직전까지 쫓던 타겟의 자동차입니다. 고가의 브랜드 자동차이지만, 총을 잔뜩 맞아 구멍이 송송 뚫린 채 버려져 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으며, 급하게 빠져나왔는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타겟이 안에서 총을 맞았는지 운전석으로부터 빌딩 내부까지 혈흔이 점점이 이어집니다. 내부를 수색하다 글로브 박스를 열면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와 [신문기사 스크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

뒤집어진 오망성 마크가 표지에 압인된 교리서입니다. 가볍게 읽어볼 시 살육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이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읽는다면 <자료조사> 판정. 성공 시** [핸드아웃: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를 전달합니다. 판정에 성공한 탐사자는 최초 한 번만 이상 1d2을 손실하고 크툴루 신화 1을 연습니다.

#### [핸드아웃: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분이 이르시되 죽음은 생명이 추구할 수 있는 것 중 제일가는 미학이라. 그 중에서도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내주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순리요, 지고지순한 형태의 나눔이자 쾌락일지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 어리석은 백성이여, 아직 깨닫지 못하였는가? 하니 우리에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매 비로소 육체에서 자유로워지더라.*

(중략)

*교주께서 가로되, 어떻게 저희를 구원하시겠나이까? 두렵나이다. 왕께서 이르시되, 살육으로 말미암아 서쪽 하늘에서 가장 크게 뜬 별로 오라. 나의 정원을 카르코사라 이르매 살육의 고통을 지고 앞장서 당도하는 자에게 더한 기쁨 있으리라.*

(중략)

*제왕이시여, 순수한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도하사 나의 이웃에게 진리를 깨우치소서.*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는 희곡 '노란 옷의 왕'(룰북 227p)의 사본을 읽고 누군가가 재해석하여 만든 와전된 형태의 교리서입니다. 희곡의 잔인한 부분에 특히 영감을 받은 저자가 하스투르를 살육의 제왕으로 해석하여 신자들에게 살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화 지수 6, 본격적 연구에 걸리는 시간은 1주, 본격적 연구 후 얻는 크툴루 신화 점수는 +2입니다. 권장 주문: 비야키 소환/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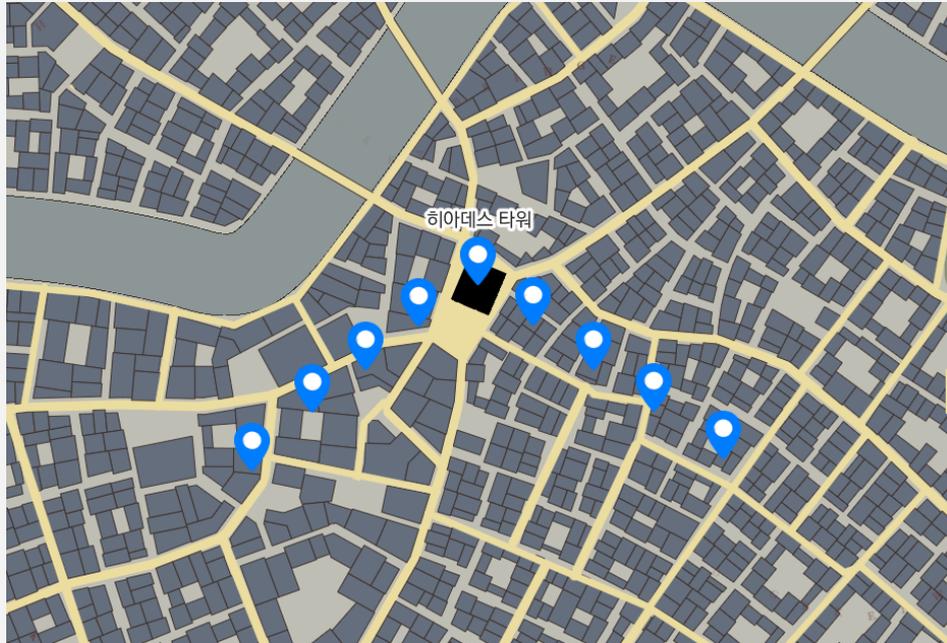
#### [신문 기사 스크랩]

히아데스 사와 관련된 여러 신문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습니다. 전부 붉은 마커로 엑스 자가 쳐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히아데스 사와 지역 발전소와의 유착 의심.', '히아데스 사가 모종의 사이비 조직을 후원하는 것에 대한 의혹' 등등, 히아데스 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핸드아웃: [단독] 히아데스 8개 부속 건물 지하에 '무허가 발전소' 발각]을 전달합니다. 평소 뉴스를 보는 탐사자라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사건임에도 이 소식들이 실제로는 보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찰력>판정 성공 시, 당신에게 몇 주 전 이 기사를 쓴 기자 중 한 명을 죽여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아챱니다. (\*이 사실은 여러 명의 탐사자가 이 신문을 확인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이 기사를 쓴 기자들은 서로 다른 킬러에 의해 전부 죽었습니다...) 그 의뢰 또한 의뢰인이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의뢰를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손으로 직접 처리했겠군요. 최근 킬러 업계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의뢰가 늘었다 싶더니,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은폐 공작이 의심됩니다.

#### [단독] 히아데스 8개 부속 건물 지하에 '무허가 발전소' 발각

대기업 히아데스 사가 8채의 부속 건물에 대형 독립 발전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건물들은 모두 금년 히아데스 타워 본사 주변에 신설된 것이다.



▲ 히아데스 본사 주위 8개의 부속 건물

당국의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IEEE 1547 표준에 따라 설치 전 구조 검토, 전기 배선 인허가, 지자체 건축/조닝 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건물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히아데스 사에서는 해당 발전 시설의 존재와 설치 이유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 [출입구]

대기업 본사이니만큼 보안이 철저해야 할 텐데, 경비원은 물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서 미약한 피비린내가 납니다.

\*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아래 이벤트를 진행시킵니다.

## ! 이벤트: 수상한 경고

\*이 이벤트는 탐사자와 KPC가 마주쳐서 킬러들 간에 긴장감이 조성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PVP가 시작될 것 같으면 이 이벤트를 바로 진행시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타워에 진입하기 직전에 반드시 진행해 주세요.

죽기 두려웠던 교단의 배신자가 도망치다가 강림을 막기 위해 탐사자를 멈춰세우고, 교단의 부교주인 비서실장(검은 옷을 입은 자)이 그를 처단합니다.

이때,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타워 내부에서 황급히 튀어나옵니다. 피투성이인 그는 다급하게 말을 잇습니다.

“다, 당신들…킬러죠? 더 이상 서로 죽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나 그가 말을 끝까지 잇기 전에 날카로운 총성이 공기를 꿰뚫습니다. 눈 앞에서 말을 하던 상대는 등 뒤에서 가슴에 총알을 맞고 즉사한 듯 그 자리에 넘어집니다.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확인할 시, 건물 내부에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가 권총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온 킬러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전원 <듣기> 판정.**

- **성공 시:** 그가 죽은 남자를 보며 “살육의 제왕께서 너를 벌하실 거다, 배신자 같으니.”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실패 시:** 그가 죽은 남자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문드문 알아들었습니다. “...께서 벌하실 거다...배신자...”

탐사자가 대화를 시도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검은 옷을 입은 이는 타워의 입구를 가로막고 조용히 탐사자들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 배신자를 처단하려 나온 히아데스의 비서실장

그는 타인에게 죽어야 할 의무가 있는 히아데스 교단의 비서실장이자 부교주입니다. 본래 교주인 갤러웨이와 함께 있어야 했으나 배신자를 처단하러 나왔습니다. 그 임무를 완수했으니, 킬러들에게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때까지는 아무도 빌딩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탐사자가 기발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는 게 목적이므로 부상이 심한 탐사자는 의도적으로 피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투 수치가 형편없는 것도 일부러 대충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알아차릴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웬만하면 뺄아가지 않고, 자신을 죽일 때까지 저항합니다. 얼굴을 확인하면, 하얀 세단에서 조수석의 갤러웨이 회장을 대신해 운전하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력 50 건강 50 크기 60 민첩 50 지능 60 정신력 50 | 체력 5 마력 10 피해 보너스 1D4

사격(권총)20 근접전(격투) 20 회피 25 | .22 쇼트 오토매틱 권총 사용 (탄환 4발)

그를 죽이거나 기절시키고 나면, 두 사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피투성이 남자]

자신을 죽인, 검은 옷을 입은 자와 같은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품에서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클릭하여 핸드아웃 참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찢어진 노트가 끼워져 있습니다.

찢어진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식의 날이 다가온다.  
교주님의 힘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아직 많다.... 의식에 킬러들, 하물며 범죄자들까지 끌어들이다니 더 불안하게 느껴진다. 살육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강림이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살육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 만일 살육이 구원이 아니라면 모두가 죽은 후에 책임은 누가 지지? 나도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죽임당해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나는 아직 죽고 싶지가 않다.’

## [검은 옷을 입은 자]

품에서 [명함]과 [휴대 전화],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클릭하여 핸드아웃 참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명함]:** 명함을 통해 그가 히아데스 사의 회장인 갤러웨이의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얀 세단에서 조수석의 갤러웨이 회장을 대신해 운전하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휴대 전화]:** 범죄에 빠삭한 탐사자는 대포폰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능> 판정에 성공할 시, 이 휴대폰의 명의로 당신에게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기사를 죽여 달라는 의뢰였습니다. 받아들였는지는 자유입니다. <자료 조사> 판정 등에 성공할 경우, 그 기자가 히아데스 사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기사를 쓰려고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 하얀 세단에서 신문 기사를 보지 못했다면 해당 핸드아웃을 전달해도 좋습니다.)

## ◆ 히아데스 빌딩 내부

히아데스 타워의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피 냄새가 맞이합니다. 대리석 바닥은 붉은 핏물로 얼룩져 있고, 금빛으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로비는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원래라면 정갈하고 보안 요원들이 가득했을 로비에 16구의 시신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갤러웨이가 흘린 핏자국은 난자한 혈흔에 가려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시신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본 두 명의 인물과 같은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모두 죽어 있습니다. 뒤져볼 경우, 시신들은 모두 [\[히아데스 교단 교리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관찰력> 판정에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 피가 아직 덜 굳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 시각은 30분 이내입니다.

- 시신들은 한데 모여 있으며,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모든 권총에 총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아 모두가 짠 것처럼 마지막 총알까지 전부 소진한 후 죽은 듯 합니다. 심지어 오차는 있지만 모든 이의 총상이 머리에 있습니다.

**<수사과학>판정 성공 시:** 시신들은 전부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상처의 크기와 혈흔의 분포를 보았을 때 모두가 비슷한 거리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서로의 머리를 목표로 하여 동시에 발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수호자 정보: 교단 인원들이 전부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 서로를 겨누고 동시에 타살로 사망한 것입니다.

### 올라가는 길을 찾으려 할 때.

건물 뒤쪽에서 희미하게 기계 작동음이 들려옵니다. 통창문 너머로 눈을 돌리면, 투명한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위층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목표, 시리우스 갤럭시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듯 힘겨워 보입니다.

잡거나 사격하려고 해도, 엘리베이터는 순식간에 멀어져 실패합니다.

바로 그때, 건물의 출입구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부서지며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킬러 중 하나로 보이는 그는 권총을 겨누고는 소리칩니다. “잘 만났다, 이 발 빠른 놈들!”

그의 반응은 탐사자나 KPC 중 누구든 시날 중 킬러를 죽인 적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갈라집니다.

#### 1) 이 자리에 있는 탐사자가 킬러를 죽인 적이 있다면(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모욕함)

침입한 킬러는 둘을 쏘아보며 코웃음을 치고 말을 늘어놓습니다.

“타겟이 왜 여기로 왔나 했더니, 꼭대기 층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가려는 건가?”

“그런데 나는 안 쫓아갈 거야. 내 타겟은 여기 있단 말이지?”

(\*아까 킬러를 죽인 캐릭터에게 총구를 겨누고 외칩니다. 죽인 게 아니라면 대화를 바꿔주세요.

탐사자가 어리둥절해질 경우 키퍼가 대충 설명해주세요. 설마 아까 그 놈이...?)

“내 킬러 애인이 아까 너한테 죽었어!”

“내 소원은 네가 여기서 타겟을 놓쳐서 원하는 걸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거다. 죽으면 더 좋고!”

“너희들, 친구냐? 걸리적거리니 이대로 다 죽어라!”

#### 2) 이 자리에 있는 이 중 아무도 킬러를 죽인 적이 없다면

침입한 킬러는 둘을 쏘아보며 코웃음을 치고 말을 늘어놓습니다.

“반갑다. 같은 업자끼리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이야. 그 얼굴들을 보아하니 아직 결판은 안 난 것 같고... 타겟은 옥상에서 헬기라도 탈 생각인가 봐?”

“실례합니다, 나 먼저 올라가게 비켜 줄래?... 해도 안 비켜줄 거지?”

“그럼 죽어라!”

킬러는 격앙된 얼굴로 총을 장전하며 달려듭니다. 간혹 의뢰를 수행하다 보면 생기는 일입니다. 귀찮게 되었군요. 이제 두 명은 침입한 킬러와 싸워 승리하거나, 그를 피해 시리우스 갤러웨이를 추격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 킬러

검은 곱슬머리를 길게 늘어트린, 덩치가 큰 여성. 자신의 애인을 죽인 캐릭터가 있다면,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라 다른 이가 자기 턴에 도망가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2루트) 둘 모두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명예롭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면 자신의 턴에 민첩 대항 등에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면 바로 도주가 가능하지만,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데에 한 턴이 더 소모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총 1대입니다.

근력 70 건강 60 크기 70 민첩 60 지능 60 정신력 50 | 체력 10 마력 10 피해 보너스 1D4

사격(권총)60 근접전(격투) 60 회피 50 | .22 쇼트 오토매틱 권총(탄환 2발), 군용 나이프 사용

그는 체력이 반절 정도 남은 경우 전투 중에 이러한 힌트를 줍니다.

“이봐, 실력이 굉장한데? 마음에 들어서 해 주는 조언인데 말이지, 이 의뢰 조금 이상하지 않아?”

“어째서 이렇게까지 일을 벌여서 갤러웨이를 죽이려는 거지? 조용히 쓱삭 해 줄 프로들이 널렸는데 말이야. 의뢰인이 취미 나쁜 살육광이라도 되나?”

“뭐, 알아서 생각해. 나는 안 그래 보여도 신중한 성격이거든. 영 찝찝해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하지만 이 싸움은 끝까지 해 봐야겠는걸!”

킬러를 죽이거나 따돌렸다 한들, 계속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50층짜리 건물이니깐요. 엘리베이터는 한 대이므로 둘이 함께 타야 한다면 분위기가 묘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쟁탈전을 해도 즐겁겠군요.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별빛을 수놓은 듯한 야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 CHAPTER3: 별이 빛나는 밤

### ◆ 타워 옥상

탐사자들이 건물 꼭대기 층에 도착하면,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옥상 문을 열자 헬리콥터는커녕, 텅 빈 헬기장만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훑날립니다. 눈부신 야경을 뒤로한 채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시리우스 갤러웨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는 다리와 어깨에 총상을 입은 듯 이미 상태가 좋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11시 반 경입니다. 그는 두 명을 향해 자신도 드디어 죽을 때가 온 모양이라고 말하며 희미하게 웃습니다. 이제 목표를 제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공격을 가할 경우 바로 전투에 돌입합니다. 아니라면, 대화를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옥상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 <관찰력> 판정 성공 시: 이 옥상의 바닥, 발밑에 희미하게 좌우로 이어지는 길다란 홈이 파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하지만 워낙 어두워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롤플레이팅 팁: 갤러웨이는 점잖은 성격이지만, 중년 교수와 같은 말투 아래 광기가 엿보입니다. 갤러웨이는 자신이 의뢰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숨기고 싶어합니다. 둘이 수상함을 느끼고 죽이는 걸 포기하는 건 싫으니까요.

#### [대화 예시(말투 고증X)]

Q.헬리콥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었나?/왜 여기로 올라왔지? 등

A. 원래 계획에서 일이 조금 꼬였다.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단에서 배신자가 발생할 줄 몰랐음을 교묘하게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는 기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Q. 의뢰인의 정체, 의뢰 동기 등 암살 의뢰에 대한 질문

A. 잘 모른다. 추구하는 것이 뚜렷하다 보니 원한 살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Q.원한을 왜 샀나?

A. 당신이나 나나 어찌 보면 동족이다. 사람을 죽여서 육신에서 해방시켰지. 다들 이해 못 하지만.

Q.사람을 왜 죽였나?

A. 재밌는 질문이다. 당신들은 대답해줄 수 있는가? 나는 '죽임'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그의 눈에 광기가 스칩니다. 더 물으면 진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촉박해 아쉽다며 적당히 끊습니다.

Q. 살육의 제왕은 무엇인가?

A. 당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에 의한 죽음만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떠벌립니다.

Q.당신이 교주인가?

A. 맞다. 이제 공공연히 드러내도 되겠지.

Q. 당신은 죽고 싶은가?

A.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일컫는 죽음이라면 싫다. (전투 직행)

Q.당신이 의뢰를 했나?

A. 타겟한테 의뢰인이라고 물어보는 킬러는 처음 보는군. (전투 직행)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거나, 시시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해지면 바로 전투로 넘어갑니다. 갤러웨이는 시간이 없으며, 가기 전에 한 놈 정도는 더 데려가야겠다는 말과 함께 총을 꺼내듭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 시리우스 갤러웨이, 죽어야만 하는 교단의 주인

그는 이미 다쳐 있기에 금방 끝이 날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최종적인 적은 그가 아니니까요. 죽는 것이 목적이므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3턴이 지나고 나면 다른 킬러 하나까지 옥상에 당도해 싸움에 참전합니다.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면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근력 60 건강 60 크기 60 민첩 60 지능 70 정신력 70 | 체력 3 마력 10 피해 보너스 1D4

사격(권총)50 근접전(격투) 30 | .22 쇼트 오토매틱 권총(탄환 2발)

시리우스 갤러웨이가 죽고 나서야 다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시리우스 갤러웨이를 누가 죽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수호자는 그를 죽였을 때의 결과를 알고 있으므로 KPC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KPC의 성격이라면 갤러웨이를 의심하고 죽이지 않는지, 혹은 그냥 달려드는지 캐릭터 설정에 충실하게 하여 선택하거나, <지능> 판정을 하여 실패할 경우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 만약 탐사자나 KPC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살인을 계속 꺼린다면

다른 킬러가 옥상에 난입하여 총으로 시리우스 갤러웨이를 사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강제 진행시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킬러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갤러웨이의 끝을 낸 이의 정체를 파악하면 얼마 전에 공중 도로를 향해 바주카포를 쏘던 그 킬러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한가닥하는 놈들이 다들 뭘 하고 있었던 거지? 하여튼, 덕분에 의뢰금은 내가 가져가게 됐어, 고맙다!”

## ! 의뢰 완수 ... ?

시리우스 갤러웨이가 쓰러지며, 그의 마지막 숨결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으며, 기이하게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기이한 기운이 옥상에 감돌기 시작합니다. 갤러웨이의 육신이, 그리고 도시의 다른 모든 시체들이 부글거리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액체화되어 바닥에 흘러갑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들 **이성 판정(1/1d2)**

당신은 발밑에서 바닥에 희미하게 파인, 좌우로 길게 이어진 홈을 발견합니다. 액체화된 시체들의 잔해가 홈을 따라 흘러갑니다. 붉고 끈적한 액체가 옥상 바닥의 홈을 가득 채우고 악마를 소환하는 듯한 거대한 역오망성 주술진을 그려냅니다. 갤러웨이의 피와 살점이 섞인 붉은 액체가 기괴한 문양을 완성시킵니다. 옥상이 약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듯, 희미하지만 분명한 지진이 느껴집니다.

남겨진 갤러웨이의 옷 사이에 그의 일지가 놓여 있습니다. 교단의 운영 방침, 살육에 대한 광기와 사람을 죽일 계획에 대해 적혀 있는 끔찍한 일지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드아웃: 시리우스 갤러웨이의 일지]

서쪽 별이 높게 뜬 밤, 교단의 모두를 동시에 순교시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분, 살육의 제왕을 지구에 불러들인다. 9개의 깎은 돌과 마력, 제물이 모두 준비되었다.

교단의 모두는 죽임당함으로서 영혼을 해방시켜 카르코사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조차 타인에게 죽임당해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강림 의식을 진행할 경우 끝까지 남게 되어 나를 죽여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의 강림 의식을 대리자에게 강제 일임하는 법>

의식 진행자는 타인을 의식 대리자로 강제로 일임시킬 수 있다. 의식 대리자는 살아 있는 살육의 강림 의식의 상징물로, 의식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주문을 외울 필요 없이 살아 있기만 하면 강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대리자는 그 분과의 접촉 기회를 얻게 되며, 막대한 정신력이 소모되는 대신 그 분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방법을 찾았다. 킬러에게 나를 죽여 주기를 부탁하면 된다. 킬러들은 숭고한 뜻이 아니라 재물에 혹하여 살육을 행하는 족속이지만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킬러라면 의식의 대리자가 되어도 살육의 제왕의 명을 받들어 끝까지 살아남아 줄 것이다. 킬러들을 불러모으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살육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다. 내 목에 현상금을 걸고 이 도시의 모든 킬러, 이름난 범죄자들이나 조직의 말단까지 끌어들인다.

돈에 혹하지 않는 킬러조차 신과의 거래를 해서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 제물인 내가 죽는 순간, 나를 죽인 이에게 대리자의 권한을 강제 일임하고 의식을 진행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가여이 여기십시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형언할 수 없는 분, 살육의 주인, 노란 옷의 왕, 하스투르이시어!

일지를 읽는 도중, 도시 외곽에 위치한 발전소를 시작으로 도시 전체가 암흑에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정전입니다. 찬란했던 도시의 불빛이 순차적으로 꺼져나가고, 어둠 속에서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이 타워와 주변의 8채의 건물, 총 9채만이 V자 모양으로 배열된 채 전력을 유지하며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어떤 신호라도 보내는 듯합니다.

(\*룰북 252p 참조. 하스투르는 본래 깎은 돌 아홉 개를 V자형으로 배열한 곳에 강림합니다. 대부호였던 갤러웨이는 이 스케일을 확대해서 지반에 돌을 포함한 건물 9채로 대체했습니다. 건물이 금색인 것은 노란 옷의 왕을 칭송하기 위함입니다.)

도시에 불이 꺼지자, 하늘에 박힌 별들이 마치 쏟아져 내릴 듯 아름답게 시야를 장악합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강렬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 **<과학(천문학)> 판정 성공 시:** 그것이 황소자리의 알데바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겟을 죽이는 데 성공한 탐사자나 KPC에게는 아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말이 들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리도, 느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전언은 기이하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먼지처럼 만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득한 존재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성 감소 1d6점**. 형언할 수 없는 그 분께서 이르되, 강림 의식이 끝날 때까지 의식의 대리자로서 그 목숨을 유지한다면, **바라는 어떤 꿈이라도** 이루어주겠노라 하니 당신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마지막 제물의 숨통을 끊은 순간 당신은 이미 의식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는 의식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기회입니다. 살아남기만 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뒤집을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강림 의식이 끝나기까지 5턴 걸립니다. 전원 그 기간을 희미하게 짐작합니다.

※ 만약 탐사자가 아니라 다른 킬러가 이계의 신과 접촉한 경우:

수호자는 그에게 혼잣말을 시켜서라도 탐사자에게 상황을 적당히 브리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그 킬러는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이상한, 이상한 목소리가... ...으아악...! 무슨, 무슨 소리야?! 대리자? 나는 그런 약속 한 적 없..." 그는 점점 허공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야..."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 준다면..." 그의 눈빛이 변하고,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의식 대리자가 된 자의 뒤에 기이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어립니다. 5m에 달하는 그 그림자는 위쪽을 드러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형태로 스멀거립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스투르의 위압감을 인식한 전원, **이성 판정(1d3/1d4)** 남겨진 이는, 의식이 끝나기 전에 의식 대리자를 해치우지 못한다면 이계의 존재가 이 땅에 당도하여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의식 대리자를 처리해야만 이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뒤늦게 옥상에 도달한 킬러 하나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킬러가 이미 난입했다면 그가 반응합니다.

이때, 탐사자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13입니다. 전화를 받을 경우 여전히 단정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사하신가요?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타겟 시리우스 갤러웨이 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전소 측으로 정보원을 보내보니 정전 사태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합니다.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가지고 협회 측에서 새로운 의뢰를 맡기겠습니다. 타겟이든,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원흉이든 죽이고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에, 본래 의뢰의 사례금 두 배를 걸겠습니다. 부탁이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즉, 의식 대리자가 된 이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모두는 이 상황이 이 도시, 어쩌면 세계의 명운을 건 사태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

## CHAPTER4: Last Shot Tonight

오늘 가장 유능했던 이가 살육의 군주의 강제적인 부름을 받고 그의 대리인으로서 도시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 해당 탐사자나 KPC의 이름을 언급해주세요) 어둠에 덮힌 도시 위로 내리쬐는 알데바란의 빛으로부터 하스투르의 권능이 의식 대리인을 감싸 안습니다. 의식 대리인은 형언할 수 없는 보호로 인해 장갑 20을 얻습니다. (\*룰북 257p '육신 보호' 참고, 피해를 입을 때마다 피해를 막고 장갑이 줄어듭니다.)

의식 대리인이 된 탐사자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나요? 살아남고 싶다면 싸워야 할 겁니다. 당신 목에 현상금이 걸렸으니 이제 이 도시의 모든 킬러들이 당신에게 총구를 겨눌 것입니다.

\*강림한 하스투르에게 지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돌아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강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하스투르와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성이 붕괴하겠지요.

옥상에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킬러는 본인이 대리인이 아닌 경우 품에서 칼을 꺼내 대리인을 적대합니다.

서로 적대할 경우,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탐사자와 KPC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 대리인이 된 이를 지키려고 들 수도 있고,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요. 적절한 롤플레이밍을 통해 상황을 이끌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킬러들은 전부 의식 대리인을 죽이려는 입장입니다.

만약 KPC나 탐사자가 대리인이 됐는데 편을 먹고 세상을 적으로 돌릴 경우, 적이 되는 다른 킬러를 한두 명 더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킬러, 불청객

탐사자 대신 다른 킬러가 의식 대리인이 되었을 때는 수호자가 해당 킬러를 보스로 롤플레이밍하며, 아래 수치를 이용하세요. 탐사자가 의식 대리인이 됐다면 이 킬러가 전투에 참전하여 의식 대리인을 공격합니다.

근력 60 건강 60 크기 60 민첩 60 지능 70 정신력 70 | 체력 12(의식 대리인일 때는 장갑을 더해주세요.)

마력 10 피해 보너스 1D4

사격(권총)50 근접전(격투) 60 회피 40 | 군용 나이프, .22구경 리볼버(3발)

---

## 저격 이벤트

전투 2라운드가 끝나면 이웃한 빌딩에서 조준경의 빛이 번쩍입니다. 이전에 모두를 노렸던 저격수의 총알이 이번에는 의식 대리자를 향합니다. 70%의 수치로 저격하며, 의식 대리자는 회피 판정이 가능합니다. 회피 실패 시 데미지 1d10을 받습니다.

### 부록: 탐사자들이 PVP를 꺼리는 경우

강제 PVP를 즐기지 않고 다른 해결법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쥐어뜯는 탐사자로 인해 수호자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위하여 평화적인 해결 방안 또한 제시해 드립니다. 탐사자들이 대안을 극심하게 찾고 싶어할 때만, 감당할 수 있다면 제안하세요.

1. 의식 대리인이 하스투르와의 거래에서 지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스투르의 강림이 필요합니다.(END2)
2. 갤러웨이의 일지를 정독함으로써 의식 대리인의 자리를 타인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주술을 쓸 수 있습니다. 주술의 대가는 재량대로 선정해 주세요.
3. 아래층으로 내려가 갤러웨이의 회장 개인 공간을 시간 내에 조사하여 ‘하스투르 송환 주문’을 찾아내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HD29139] (HD 항성 목록에 등록된 알데바란의 번호이자 갤러웨이의 차 번호)입니다. 금고 번호 힌트는 신의 눈, 알파벳과 숫자 포함 7자리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창작 히든엔딩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5턴이 끝나면 엔딩이 진행됩니다.

5턴 안에 의식 대리인이 죽었다 ▶ END1

5턴 동안 의식 대리인이 죽지 않고 버텼다 ▶ END2

의뢰 중도 포기 ▶ END3

---

# ENDING

## END1

조건: 의식 실패 (최종 전투에서 5턴 안에 의식 대리인이 사망)

이계의 군주의 총애를 받던 몸이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넘어갑니다. 동시에 거대한 시선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를 훑으며 온 몸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압도적인 위압감이 살의에 대한 감각을 곤두세웠다가 천천히 사그라듭니다. 휘광이 거두어지고, 적막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주변을 채우는가 하면...

3, 2, 1.

팟!

대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납니다. 정전은 끝이 났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의 네온사인,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광고판들, 거리마다 깜빡이는 헤드라이트와 차량들의 행렬이 어지럽게 흐릅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은은하게 수놓으며, 어둠이 내려앉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별 따위 보이지 않는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자, 귓가에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의식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야 한 발 늦게 도착한 경찰차들이 타워를 빼곡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라져줄 시간입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립니다. 옥상에 착륙하는 그것은 경찰 헬리콥터처럼 보이지만, 사격을 가하기 전에 번호가 13으로 끝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디까지 모실까요?”

헬멧을 쓴 조종사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내리고 현금이 가득 든 돈가방을 던져줍니다. 1억 8천만 달러(수수료 제외)입니다. 그가 보낸 것입니다. 원한다면 탑승해도 좋습니다. (\*덧: 13이 보낸 헬리콥터입니다. 헬멧을 벗겨 봐도 그가 13의 본체는 아닐 것입니다. 탐사자가 탑승을 거절하면 납득하며, 탈출용으로 원하는 장비가 있으면 꺼내줍니다.)

헬리콥터가 떠나갑니다. 도시를 장악했던 킬러들은 옷을 갈아입고, 무기를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화려한 골목과 골목 사이로 사라집니다. 뒤늦게 들이닥친 경찰들이 도시를 뒤져도 그들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곧 아침 해가 새롭게 뜨고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도시의 이면에서는 수많은 누군가가 죽고 잊혀집니다. 그럼에도 지난 밤, 도시에 정상에 섰던 한 거물은 동업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기억될 것입니다.

### END1: Big Shot Tonight

생환 보상: 이성 +1d10, 재력 +20

의식 대리인이 되었던 이는 아쉽게도 로스트했지만 이 사태를 목격한 동업자들에게 암암리에 전해져 전설의 킬러로 이름이 남습니다.

## END2

조건: 의식 성공 (최종 전투에서 의식 대리인이 5턴간 생존)

피투성이가 된 옥상 위에서 의식 대리인의 등에 어린 그림자가 점점 형체를 갖춥니다. 정전으로 인해 어둠에 잠긴 대도시 위, 황금빛으로 빛나며 깜박이는 9개의 건물 위로 직물이 찢어지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균열 사이로 불길한 노란빛 광채가 새어 나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뒤틀리며 확장됩니다.

곧이어 그 찢어진 공간 너머에서 나타난 것은 형태가 없는 동시에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비유할 수 없는 기하학적 형태들이 끊임없이 변형되고 뒤섞입니다. 황색의 찢어진 천 조각들이 우주를 부유하는 먼지처럼 허공에 휘날리고, 그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것은 심연보다 깊은, 무(無)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눈알도 없고, 팔다리도 없었지만,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모두를 응시하는 듯 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개념적인 공포. 형언할 수 없는 하스투르가 지구에 강림합니다.

강림의 충격은 도시 전체를 강타합니다. 지상 수백 미터 위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은, 모든 시민들의 창문 너머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산발적이었던 비명은 이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절규, 광소, 그리고 이성을 잃은 자들의 의미 없는 중얼거림과 흐느낌이 어둠 속에서 난무합니다.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충격에 직면합니다. **전원 이성 판정 (1d10/1d100)**

의식 대리인이 되었던 당신에게 고합니다.

당신은, 의식을 훌륭하게 성공시킨 의식 대리인으로서, 하스투르의 시선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태 없지만, 그 존재는 당신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지식과 개념의 홍수이자, 모든 현실을 뒤틀어버릴 수 있는 무한한 힘의 현현입니다. 당신의 정신 속에서 우주적 존재의 거대한 의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 의지는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분개서 이르시되, 너의 소원과 대가를 말하라. 영원한 존재와의 계약은 너의 작은 소망을 넘어설 것이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세계의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리라.

압도적인 힘과 광기 속에서, 당신의 정신은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스투르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와 명성,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일, 모든 인류의 지배, 혹은 현실의 법칙 자체를 뒤엎는 것까지도. 혹은 그저 돌아가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스투르는 그의 소원을 들어준 후 세계의 명운을 지켜보다 알데바란이 지평선 아래로 지면 떠납니다. 이후의 전개는 수호자의 재량대로 풀어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 자체가 변화할 경우: 소원에 타인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하스투르가 탐사자를 신도로 착각한 것인지 탐사자는 이전의 기억을 유지한 채로 변화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문제는 깎인 이성도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탐사자 대신, 수호자가 롤플레이하는 NPC 킬러가 의식 대리인으로서 성공한 경우 아래 6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1d6으로 정하여 행동합니다.

1. 절규하다가 제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한다. 2.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한다. 이 경우 세계의 질서가 되감기는 묘사와 함께, 모든 이가 정신을 잃습니다. 3년 전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3.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한다. 4. 죽은 가족을 살려 달라고 한다. 킬러도 인간인지라 사정이라는 것이 있군요. 5. 이 일 자체가 없던 일이 되게 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경우 눈을 뜨면 탐사자들은 히아데스 사 자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킬러라는 직업을 가진 시리우스 갤럭시 회장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6.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다. 가장 정신이 나간 요청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실업자나 다름없습니다. 세상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 END2: Last Shot Tonight

생환 보상: ?

처음 받은 의뢰를 완수해낸 이는 엄청난 보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단, 큰 힘에는 큰 대가가 필요하답니다….

## END3

조건: 의뢰 중도 포기 (개별 엔딩)

탐사자는 찌찌한 의뢰를 포기합니다. 모든 탐사자들이 의뢰를 포기한 경우, 자동으로 END2와 같이 하스투르가 강림하며 세계를 뒤집어 엎게 됩니다. 일부만 포기한 경우 나머지 탐사자들이 본 결말에 따라 탐사자들이 도시의 곳곳에서 빌딩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하는 서술을 진행해주세요.

**END3: 방관자**

---

## 후기

안녕하세요, 라성입니다! '게스트 오브 라이브'에 이어서 화려하고 강렬하게 즐기기 좋은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를 한 번 써 봤습니다. 괜찮으셨을까요? 이제는 더 큰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탐사자가 최종보스가 되는 시나리오는 어때?!"같은 생각을 해 보았네요. PVP는 호불호가 갈릴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보스가 되거나 사망한 탐사자들을 존중해 주며 플레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킬러 액션 작품들이 시나리오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 워'와 '더 킬러', '사카모토 데이즈'가 대표적입니다.

노란색 이야기만 꺼내면 배후가 노란 옷의 왕임을 알아채는 크툴루의 부름 박사들을 위해서 일부러 희곡과 관련한 말을 빼고, 황금색이라는 단어를 쓰는 등 이것저것 아주 약간씩 돌려 써 봤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장르의 시나리오를 써 볼까요…?

늘 즐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13과 킬러 협회의 정체는 설정해두지 않았으니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재밌게 즐기셨다면 플레이타임만 적어주셔도 좋으니 후기 품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 품 ▼** 질문이나 피드백, bgm 추천도 받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7W5hh0EbpAXffuXT6Ak49rXN1VLKkkDVaJfHglSI\\_TFD6Bkw/viewform?usp=pp\\_url](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7W5hh0EbpAXffuXT6Ak49rXN1VLKkkDVaJfHglSI_TFD6Bkw/viewform?usp=pp_url)